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께

아내의 피지 재입국 소식과 최근 상황을 전하고자 글을 씁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관광이 주업인 피지도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관광객이 없기에 직장을 잃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마저도 올해 태풍으로 집이 파손되고 농작물의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사역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피해를 복구하고 있고, 공동 생활비를 낼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인도인 부부와 중국인이 살해당하고 여러 명의 폐강도들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어 의지가 되었는데 모두 한국으로 철수하고 나니 외국인이라고는 이 지역에 저희뿐이고 대문도 잠금장치가 없는데다 담장이야 철조망인지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1년 전, 피지 올 때 피지를 와보신 선교사님이 거길 왜 가냐구 말리시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피지에 처음 온 날 제가 본 피지는 마치 30년 전의 인도 콜카타의 오래된 거리와 마을을 보는 듯했어요. 그래도 피지의 도시는 국제학교도 있고 영화관이며 쇼핑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시골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이곳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도시에 국제학교도 있지만 저희 형편에 보낼 수도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흙먼지 나는 비포장도로 옆이라 아침에 등교하면 먼지가 쌓인 책상과 의자를 닦아야 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에 비 쏟아지는 소리에 선생님 목소리조차 희미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이들이 선풍기 두 대 뿐인 교실에 두 대의 선풍기가 더 달렸다고 좋아합니다. 35도의 더위와 땀 냄새 더러운 화장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에서 리더로서 아이들을 도우며 잘 지내는 딸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4월 13일, 아내 정나영 선교사의 피지 재입국을 피지 총리실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아내 정나영 선교사가 1년 5개월 만에 피지로 재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의 피지 입국이 안되었기에 피지총리실에 메일을 보내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렸는데 최종적으로 입국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사역과 가사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라면을 자주 먹게 되더군요. 이제 냄새만 맡아도 느끼하고 더구나 배추김치 먹어본지가 일년이 되었네요. 배추를 구할 수 없어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먹기는 했습니다. 이제 식빵 도시락 대신 엄마의 도시락을 아이들이 갖게 될 날도 곧 멀지 않았네요. 엄마 없이 한비 지혜가 잘 견뎌주었습니다. 저는 집안 일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종원 래시피보고 이것 저것 만드는 재주는 늘었지만 아내의 손맛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4월 13일 아내가 한국을 출발하여 뉴질랜드 공항을 경유해서 피지로 오게 되는데요. 오클랜드 공항 내에서 1박 2일을 기다려서 피지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공항 내 식당도 문 닫았다고 하고 피지에 입국해서도 14일간 정부 시설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피지 YWAM 대표로서 성숙함과 본질을 위해

YWAM을 설립한 로렌커닝햄 목사님과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리더들과 ZOOM으로 화상 미팅을 갖었습니다. 남태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선교의 물결이 온 대륙으로 나아가는 환상으로 저희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베이스 대표와 피지 YWAM 대표의 직무를 다같이 병행하기에 밤 잠 못자고 서류를 만들고 베이스 간의 중재와 업무 회의로 제 시간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담을 그릇을 크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학 청년 때 기도한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는 일에 한 부분이라도 참여한다는 맘에 감사합니다. 모든 이를 섬김에 있어서 성숙함과 표면적 뒤에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구합니다.

4월에 칸다부 섬과 6월에 로투마 섬 사역 개척을 위하여

지난주에 피지의 남단, 칸다부라는 섬에 사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저희 팀원 4명을 파송했습니다. 이 섬은 작년에 피지 경찰이 마리화나 재배지를 급습하며 드론으로 마약재배지를 찾고 원주민들은 사냥 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마약 재배로 이익을 만들던 곳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 작년에 먼저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그 때 만난 지역 목사님과 성도들로부터 저희 팀을 보내 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조비목사와 살라자매, 루시아자매, 와이스형제가 개척 팀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피지에 재입국하는데로 저 또한 가봐야 합니다. 마약재배지이던 이 섬에 제자훈련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6월에는 안나 자매와 키니자매 아이삭형제 루시자매 리티아자매와 함께 피지의 북단에 있는 로투마 섬을 개척해야 합니다. 9월에는 라투형제와 같이 3개월 과정의 성경연구학교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차량 문제를 위해

피지에 오기 전에는 저는 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한국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교회 차량 관리 집사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고, 캐나다에서는 교회 권사님의 정비소에서 모든 차량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피지에 오니 모든 부품 교환이며 차량 관리를 동네의 작은 차고 가라지에서 무자격 그냥 일하면서 배운 인도인 정비사와 함께 차를 고쳐야 했습니다. 제 차가 중고차이기에 정말 엔진과 미션 빼놓고 전부 갈아본 것 같습니다. 엔진 마운팅 교체 후 달리다가 볼트가 풀려서 엔진이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이곳 피지는 비포장 도로가 많기에 타이어는 1년 6개월이면 바닥 와이어가 드러납니다. 새 타이어 바닥이 찢어지거나 펑크로 달리다 서보기도 수차례입니다. 속쇼바, 스테빌라이저 부싱, 링크, 시비조인트 등을 2년마다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포장 진흙길인지라 사역지를 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차량 바닥이 낮고 도시형 승용차이기에 차량 바닥 외부의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가 터지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4륜형으로 바닥이 높은 차량으로 차를 바꾸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생활비가 없고 방이 좁아서 사역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24명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 합하면 30명입니다.

15명 정도가 방4개와 거실까지 방으로 만들어서 화장실은 하나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거주할 집이 좁아서 멀리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데

요. 멀어서 베이스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비도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거주할 집 마련이 시급한데 제 형편으로는 지금 월세와 식료품지원등 사역비 지원으로도 힘겹습니다. 또한 올해 개척할 섬 사역이 있는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보면 사역을 줄여야하는지,,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들과 거의 매일 사역을 마치고도 밤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도 만들고 사역자들을 격려하지만 지친 모습을 봅니다. 거실에서 몇 달째 자던 케무형제와 쿠시형제가 집으로 돌아갔고 내일은 찬양인도자 조세바형제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작년 dts 학교 리더였던 아테다자매는 공동생활비를 못내는 것이 미안한지 집으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어렵게 훈련시키고 사역자로 신실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일단 저는 베이스 월세와 신입간사들을 먼저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스 공동 생활집과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기도 제목

1. 아내 정나영 선교사의 4월 13일 피지 재입국 과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지 재입국에 필요한 경비가 채워지게 하소서. (항공비 2백만원, 격리비와 검사비 240만원)
2. 저희 가족(최병욱 정나영 은평 한나 한비 지혜)과 30명의 베이스 사역자 가족들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을 좇아 살게 하소서. 재정 문제와 적은 거주 공간으로 집에 돌아간 형제 자매들이 다시 돌아오고 필요한 공동생활비와 넓은 집이 마련되게 하소서.
3. 피지 남단 칸다부 섬(마약재배지)과 북단의 로투마 섬을 개척하는 개척 사역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자훈련학교를 열게 하소서. 오고가는 배편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4. 비포장 도로, 산간 마을 사역을 위해 4륜 차량을 주옵소서.
5.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남태평양 14개 섬나라들과 아시아와 온 대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6.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가정과 교회와 생업 위에 성령의 역사와 나눔으로 삶을 영위하는 축복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광의 삶 되게 하소서.

최병욱 정나영 선교사 드림

피지 ywam 대표, ywam youth center 대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파송 선교사.

이메일: mercycbo@empas.com

전 화: (679) 932 0478

P.o box : 11400 Sigatoka, Fiji Islands.

후원계좌: 국민은행 203 24 0471 172 최병욱